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8월 7일)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몸 멀어도 마음 가까이 차례·나눔 비대면 전환

## 코로나 이후 첫 추석… 달라진 명절 모습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추석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불교계 역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매년 불자와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증가 추세에 있던 사찰 합동차례는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쉼 · 마음나눔' 을 주제로 10월 1일 오전 8시와 오전 11시, 오후 1시 3차례에 걸쳐 추석 합동다례재를 진행한다. 조계사 합동다례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다례재 참석 대중이 모두 대웅전에 들어갔던 예년과 달리 대웅전 앞마당에서 대기 후 순번에 따라 대웅전에 입장해 조상들에게 다례를 올린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유의하면서 부처님 도량에서 조상을 기리며 정성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원)는 10월 1일 오전 10시 2층 큰법당에서 추석합동다례를 진행한다. 전각 앞마당이 없는 국제선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가능성에 따라 법당에서 진행되는 합동다례 참여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 매년 함께 진행하던 새터민 합동다례도 장소를 다시 정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를 함께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합동다례 이후 새터민을 위한 나눔의쌀 증정행사도 포장배송 형태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국제선센터 측은 "현재 모든 사중 행사를 유튜브로 중계 중인데, 합동다례 또한 온라인 중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 이라며 "법당 내외에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1일 오전 8시와 오전 10시, 오후 2시 법왕루에서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봉은사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법왕루 내 인원을 통제하고 초과할 시 외부 공간에서 대기토록 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내 지장전, 선불당, 영각, 미륵전, 전통문화체험관, 영산전, 판전 등에서 가족만이 참석 가능한 단독차례도 함께 진행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솔)도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합동다례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된 다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과 '한마음TV' 를 통해서 생중계 된다.

전국 불교계 복지관은 매년 추석이 되면 합동차례 등을 마련해 소외이웃과 지역주민들의 보다 풍성한 명절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명절 선물로 대체하거나 온라인 합동차례 형태로 변경하고 있다.

**합동 차례 · 나눔 행사 등**
**온라인 · 거리두기로 진행**
**템플스테이는 휴식형만**

매년 합동차례를 준비해 온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실향민 등을 위한 온라인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 각 가정의 지방만을 신청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도 매년 추석을 맞아 무료로 진행해 온 '선망부모 조상 및 각종 인연영가 합동차례' 를 9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종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6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추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휴관으로 예년과 같이 복지관에서 추석을 함께하지 못하기에, 명절 선물을 키트로 만들어 200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됐다.

올해에는 추석 명절 템플스테이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추석 관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고 일부 사찰서만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불교 지도자들은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따뜻한 위안과 격려를 선사해 주신 스님과 불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 대응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은 원행 스님이 불교 지도자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 문 대통령 "방역 앞장 선 불교계에 감사"

**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서**
**9월 19일 13명 불교지도자 참석**
**정부–종교 대응협의 논의 시사**
**원행 스님 "낮은 자세로 보살행"**
**진제 스님 '만고휘연' 휘호 전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만고휘연' 친필 휘호.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의 선제적 조치와 지속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불교 지도자들은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따뜻한 위안과 격려를 선사해 주신 스님과 불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 대응에 재차 감사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특히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뒤로 미뤘고 천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앞두고 내린 용단이기에 감사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방역과 종교활동 병행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법회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교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봉착한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우리 불교 정신과 문화의 참된 가치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유네스코 등재를 뒷받침하겠다"며 "또한 법회 중단 장기화로 불교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9월 24일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 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지도자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큰 시름에 빠졌다"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태풍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도 또한 크다"고 말했다.

또한 '우직한 사람이 한 우물을 파서 크게 성공한다' 는 우공이산을 인용해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과 사회 지도자, 불교계는 우공이산의 고사를 교훈 삼아 대중에게 더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불교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선도적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랐고, 우리 사부대중 또한 종단협의회 지침에 잘 따랐다"며 "법회가 중단되고 산문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불교계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그날까지 방역 당국과 함께 불교계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원행 스님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로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이 쓴 '만고휘연(萬古徽然)' 친필 휘호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는 '무한 세월동안 영원히 광명하다' 는 뜻이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 소속 종단 수장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13명의 불교계 인사가 참석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